

Zion soon to build here(around Sosa district)

Zion will be founded right before Heaven

Do you know what the Zion is like? It's a place on our way to the Heaven. There is a hymn that reads "The morning that Zion's Glory shines", isn't there? "The morning when Zion's Glory shines" means the light is shining from the LORD. Since the light could abolish all the spirits of Satan, all people are supposed to become Gods. It means the glorious light of the LORD rises upon his head as well.

"This dark land becomes bright" means since all people become Gods they get to know the whole things. The magnificent light of the LORD lets people get to know everything.

The Zion is a world where all humans will become Gods because the LORD is going to eradicate Satan in their minds. It means the world of Satan will turn into that of Gods, doesn't it? However, the glorious light of LORD is the curved ray, with no shade and darkness. The light will shine more than ten times stronger than the sunlight. Satan cannot access to the world because it is an LORD-ever-shining-world within day and night. Thus the world is where anyone can't exist and live.

The LORD is going to lead all human to turn into Gods in that world. He is supposed to rule over the whole universe forever.

the LORD comes as a thief

People think the LORD as a human because HE has an image of a human, but a true form of the LORD is not human according to Gyeong-Am-Yulog in a Korean Prediction book. The Trinitarian God has developed a weapon to eradicate the Satan for 6000 years and has come to Korea as a Korean. People don't know it.

The Bible says the day of the LORD comes as a thief(1Th 5:2). As God knew that if Satan would hinder his coming, he was supposed to appear like a thief. Only if the Trinitarian God dressed in an image of a human has come to the world, Satan didn't notice HIM as the LORD. Therefore the Bible says the day of the LORD comes as a thief.

The day of Zion's Glad Morning is gradually getting close. The LORD is supposed to judge people whether they can go to the heavenly kingdom or not. If someone is judged that he is not qualified to live in heaven, He is supposed to throw him away. Since the day is coming close, those who neglect to attend this Altar and act unruly will be unhappy. According to Daniel 12:11 "From the time that the daily sacrifice is abolished and the abomination that causes desolation is set up, there will be 1,290 days." Shouldn't you attend



daily sacrifice(worship services) you never be saved. Only if they go to daily services and glorify God in every day life are enlisted in saved people.

Becoming one flesh is the secret of salvation

This man continues to say you act one heart and mind to be saved. If you and I have a different thought on something, we are not one. As Satan is a separating spirit, it cannot become one. However, God can make one no matter how many people are, even if there are six billion people. So people who will be saved are supposed to become one.

So 'hananim' meaning God is formed by adding 'nim' to 'hana' meaning in Korean word. Only if one is a God, they will be saved. If you want to be God you must be

united first and foremost. If we don't become one, it has nothing to do with salvation. There is eternal life in one, there is heaven in one, and God is in one.

At the moment when Satan enters into humans and becomes their controlling souls, the splitting spirit Satan turns into their dominating one, thus humans can't be one. There are ingredients of Satan in human's mind, and Satan is a disuniting soul. Therefore all people never become one. Since they have been controlled by Satan the spirit of spirit they can be united.

That's why our church urges you to consider everyone as myself. This means you and I must become one flesh. If they want to be Gods, first of all, they must be one. Only if one becomes one, which can bring us the HEAVEN.

In Zion, life water flows like a river

"Water in the dry brook is flowing" is a spiritual word. is a spiritual word, if those who we were not connected to the life water are reconnected to the life water, it means that water the dried stream is flowing.

"Look at the flowers in the desert" means as all humans will become Gods, then they will be beautiful like flowers. So it says water in a dried brook is flowing through th flowers. Those flowers indicate the people who became Gods.

Therefore, Zion means that after the world of humans is turned into that of God, the life water is connected to them. Is there a hymn that the living water flows along from the throne of the little lamb? The little lamb means the Savior. The living water flows from the Savior. Thus the living water runs between God like flowers and goes by all over the world. That world where the living water flows is right Zion, which is the world that humanity turns into Gods.

Manbeobjeon, a Korean Prediction book, said that all people would live in the midst of light. This means the light of the Savior is not abolished but one saving all things, on that day, ego within all human beings will be removed. Then ego within all human beings will be reinstate Gods. That

first land where is recovered into Gods is Zion

Zion is imminent

Zion is getting close. You must act as Gods to become Gods. However, if you do as humans, you can't enter into the Hea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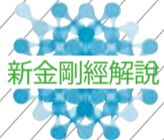
Human are jealous, offended, and nervous. He also commits lewd sins and get angry. You have to throw away all these human traits to get rid of human masks.

The kingdom of heaven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human world will end soon. It will become the world of God. The universe becomes a heavenly country. Heaven is not a separate country. If humans become Gods, the kingdom of heaven will be established in this universe because everywhere God exists is the kingdom of heaven. You get it?

The Savior came to build the kingdom of heaven. The Savior came to make the world God alone, with the devil gone. There are many fake Saviors in the world, and they lie to you, too, but only a little bit later the lies will be revealed. All churches with crosses have to tear off the cross and put up the signs of the Victory altar.*

Extracted on the sermon of the Victor Cho Hee Sung on Feb. 6th, 2002.

Translation: Bookman KIm, Angela Kim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8>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第五

이와 같이 진실로 보는 것(2)

佛告 須菩提 불고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금강경 제1 사구계(第一 四句攝)

- ① 凡所有相 범소유상
- ② 皆是虛妄 개시허망
- ③ 若見諸相非相 약견제상비상
- ④ 卽見如來 즉견여래

무릇 (내가 부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 이것은 다 거짓되고 망령된 것이니, 만약 (석존이 말한 모든 (자신의)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 아닌 줄 알고 보면 곧 여래(미륵여래=범신불)를 바로 보리라.

해설) 위의 문구가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구계 중 첫 번째 사구계입니다. 이 문구를 절집에서는 물질이나 색이 어떠한 내지는 공(空)사상이 어떻고 하는데 열반경을 살펴보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역시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석존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진여(眞如)의 실상(實相)을 수보리와 의 가르침에서 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2가지의 거룩한 모습:

삼십이상(三十二相) 범어(梵語, 산스크리트어): Dvātrimsatmahapur-usalaksanani 부처님 몸에 갖춘 32표상(標相)/삼십

이대인상(三十二大人相)/삼십이대장부상(三十二大丈夫相)이라고도 함. 이 상(相)을 갖춘 이는 세속에 있으면 전륜왕(轉輪王=轉法輪王=轉輪聖王), 출가하면 부처님이 된다고 함.

1. 발바닥이 평평함 2. 손바닥에 수레바퀴 같은 금(무늬)이 있음
3. 손가락이 가늘면서 긴 것 4. 손발이 매우 보드라움
5. 손가락, 발가락 사이마다 얇은 비단결 같은 막(膜)이 있음 6. 발꿈치가 원만함 7. 발등이 높고 원만함
8. 장판지가 사슴 다리 같음 9. 팔을 펴면 손이 무릎까지 내려감
10. 남근(男根)이 오르라들어 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말의 것과 같음(陰馬藏)
11. 키가 한 발(두 팔을 편 길이)의 크기와 같음 12. 털구멍마다 새까만 털이 남 13. 몸의 털이 위로 쏠려 남
14. 온 몸이 황금색임 15. 몸에서 솟는 밝은 빛(감로광명)이 한 길(보통 사람의 키 정도)됨 16. 살결이 보드랍고 매끄러움 17. 두 발바닥, 두 손바닥, 두 어깨, 정수리가 모두 평평하고 둥글며 두터움 18. 두 겨드랑이가 편평함 19. 몸매가 사자와 같음 20. 몸이 곧고 단정함 21. 양어깨가 둥글며 두둑함 22. 이가 40개나 됨 23. 이가 희고 가지런하고 뻐뻐함 24. 송곳니가 희고 큼
25. 뺨이 사자 것과 같음 26. 목구멍에서 맞춘은 진액이 나옴 27. 혀가 길고 넓음(廣長舌) 28. 목소리가 맑고 멀리 들림 29. 눈동자가 검푸름
30. 속눈썹이 소의 것과 같음 31. 두 눈썹 사이에 흰털이 남 32. 정수리에

살 상투가 있음 [東國大學校(동국대학교) 譯經院(역경원) 刊(간) 사전 인용]

※ 금강경의 26분 범신비상분(法身非相分)에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바로 여래(如來)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곧 스님께 가운데 미륵불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가운데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심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실로 보는 것(3)

미륵여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중생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사람의 몸은 입었으나 온 몸이 빛으로 충만하시었으니 이것이 바로 감로(甘露)인 것입니다. 이 감로는 살아 움직이는데 사람들의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죽지 않고 성불(成佛)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인류 역사 이래 보지 못했으니 쉽게 이해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인이신 미륵부처님은 돌부처나 청동부처 형상이 아닌 육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현신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 오신 분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하시나 사실은 감로를 가지고 사람들 각각의 업장을 감로의 빛으로 소멸시켜 지혜를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며 희망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위대한 능력의 주인 공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주에 확산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망마귀(死魔)를 감로의 빛으로 소멸시키며 온 우주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십니

다. 우주의 주인이신 미륵부처님께선 분신(分身)의 능력이 있으시므로 동시에 각각의 장소에 각각 다른 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포대화상의 열반송(涅槃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彌勒 眞彌勒(미륵 진미륵); 미륵불 진짜 미륵불은 分身 千百億(분신 천백억); 분신을 천백 억으로 하여서 時時 示時人(시시 시시인); 때때로 사람에게 내보이지만 時人 自不識(시인 자불식); 사람이 어리석어서 알아보지 못하네

또한 우리나라 예언서인 격암유록(格庵遺錄) 말운론(末運論)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似人 不人 天神降(사인불인천신강);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께서 내려오신 것이다

해설) 위의 말씀의 뜻은 미륵부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법을 설하시는 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진지를 드시고 잠을 주무시고 각 지방과 해외제단을 순회 방문 시(時)에 자동차의 비행기를 이용하시니, 사람이 아니냐고 하지만 겉모습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조금도 빈틈이 없으신 완벽한 부처님이라고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승리제단에서 법문



부처님의 32상 가운데 몸에서 솟는 밝은 빛(감로광명)이 촬영된 사진

을 펼칠 때에 태양과 같은 불명어리로 변신하여 설법을 하시니 초발심을 낸 신자들께서 오셔서 보시고 놀라는 일들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법을 설하시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는 미륵부처님의 거의 두 배나 되는 불기둥이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으니 이것이 32상의 하나로 말씀하신 <15. 몸에서 솟는 밝은 빛(감로광명)이 한 길(보통 사람의 키 정도)됨>이 확인되고 있으니 모든 경전에서 통일되고 일관되게 우주의 주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바로 불경에서 석존이 말하는 감로(甘露)입니다.

또한 불경 열반경에는 미륵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21권(권) 광명변조고귀왕보살품(光明遍照高貴德王菩薩品)의 3

如來常有漏中故 有漏卽是二十五有 是故聲聞凡夫之人言佛有漏 諸佛如來眞實無漏(여래상행유루중고 유루즉시이십오유 시고성문범부지인연불유루 제불여래진실무루)

부처님께서 항상 유루(有漏) 가운데 행함(이유 유루란 곧 25유) 그러므로 성문과 범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처님

은 유루' 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진실로 무루' 니라.

해설) 예컨대 팔관대장경 화엄경의 누진통(漏盡通)이란 단전(丹田)에 성명(性命)이 펼쳐짐 하나로 뭉쳐져 기(氣)가 새어나가지 않는 경지에 달하면 그 속에서 진종(佛性, 眞種=부처, 성령)이 만들어지는데 다시는 번뇌의 욕정이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날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도(道)가 통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진통(漏盡通)'이란 글자 그대로 '다 새어나감'을 뜻합니다. 반대로 없을 '무(無) 자를 앞에 붙여 새어나가미 없는 '무누진통(無漏盡通)'이 될 때 비로소 신선이 되고 성불하여 해탈자가 되는 이치이니, 이는 글자 겉 모습을 보면 언뜻 알 수 없도록 마구니(魔)를 기만한, 대장경(大藏經)의 크게 감추어놓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유루(有漏)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진실로 무루(無漏)니라.'는 열반경(大般涅槃經) 21권의 말씀과 짝을 맞추면, 「유루(有漏)=누진통(漏盡通)」으로 「무루(無漏)=무누진통(無漏盡通)」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무루 곧 무누진통을 이룬 성불자(成佛者)는 고자의 경지에 이른 생미륵불처럼 음마장(陰馬藏; 32상의 하나)을 하고 있습니다.* 明鐘